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진로 의사결정 문제와의 관계: 정서적 어려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 지 원

이 기 학†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인애착이 정서적 어려움을 매개로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생 190명을 대상으로 성인애착,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정서적 어려움(특성 불안 및 특성 비관주의, 상태 불안 및 상태 비관주의)을 측정하였으며, SPSS 18.0과 SPSS Macro를 사용하여 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 다중매개효과분석을 실시하여, 성인애착이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확인하였다. 또한, 성인애착유형에 따라 경로의 영향력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애착 하위요인 중 애착불안과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는 상태 불안 및 상태 비관주의에 의해 완전히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애착회피와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는 상태 비관주의에 의한 간접효과만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성인애착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에서는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의 두 요인 모두 특성 불안 및 상태 비관주의에 의해 완전히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변량분석결과 성인애착유형별로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완전매개변수로 확인된 상태 불안, 상태 비관주의, 특성 불안에 대해서도 유의한 차이가 보고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진로상담 실제에서의 시사점과 후속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논하였다.

주요어 : 성인애착,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불안, 비관주의, 매개효과

*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기학,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120-749)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 50로
Tel : 02-2123-2445, E-mail : khlee2445@yonsei.ac.kr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비단 일과 직업의 영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 전체와 맞닿아 있는 것으로써, Super(1957)의 진로발달이론에 의하면 대학생 시기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 주요한 진로발달과업이 되는 바, 이 시기에 경험하는 진로의사결정문제는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대학생들은 다양한 직업적 탐색을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분야를 발견하고 안정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며(Savickas, 1997), 자신의 정체성과 직업의 실현 가능성을 바탕으로 미래의 직업적 선택을 구체화하며 준비하는 과정을 경험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업 수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추후 개인의 심리적 안녕이나 진로적응과 같은 장기적인 문제와도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Kelly & Lee, 2002), 이들의 진로의사결정문제의 수준과 원인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진로상담을 제공하는 것은 진로상담연구의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Mitchell & Krumboltz, 1984).

이러한 진로의사결정문제 중 진로미결정은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선택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진로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로 인해 자신이 결정한 진로에 확신을 내리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며(Crites, 1981; Tokar, Withrow, Hall, & Moradi, 2003), 진로와 관련한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마주치는 어려움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Chartrand, Rose, Elliot, Marmarosh, & Caldwell, 1993; Gati, Krausz, & Osipow, 1996), 대학생시기에 한번쯤 보편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발달과정상의 어려움이라고도 할 수 있다. 실제로도 성인초기의 많은 대학생들이 진로목표를 구체화하지 못하고 진로미결정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Gaffner & Hazler, 2002). 그러나 발달과정상의 자연스러운 단계라고만 여기기에는 진로미결정 문제는 여러 다른 정서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와 수준, 원인에 따라 개입 및 해결방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다 주의 깊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대학교의 상담센터나 학생생활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대학생들의 주 호소 문제 중 진로적성 문제가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 2010; 서강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2008),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갓 진학한 신입생들에게도 주요 걱정거리가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2011; 숙명여자대학교 학생생활상담소, 2011; 연세대학교 상담센터, 2011),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심리적 디스트레스(distress)와도 높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Multon, Heppner, Gysbers, Zook, & Ellis-Kalton, 2001), 대학생들의 진로미결정 문제의 수준과 원인을 이해하는 것은 효과적인 진로상담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으며(Burns, 1994; Meyer & Winer, 1993),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정애경, 김계현, 김동민, 2008).

진로의사결정문제와 관련한 또 다른 주요 변인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Bandura(1977)가 주어진 과제 수행에 대한 개인의 신념이라고 정의한 자기효능감 이론을 Hackett과 Betz(1981)가 진로연구에 도입하여 그 개념을 확장시킨 것으로, 진로관련 목표 달성에 대한 신념의 정도, 다시 말해 진로결정에 있어서의 자기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Taylor & Betz, 198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발달과정에서 특정 직업이나 진로에 대한 효과적인 의사결정과 진로계획의 지속적인 추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은진, 2001), 진로미결정에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으며(정애경 등, 2008), 진로발달패턴의 개인차(Gianakos, 1999)를 나타내고, 특정 진로선택(Kelly, 1993; Lent & Hackett, 1987)이나 진로탐색행동(Blustein, Devenis, & Kidney, 1989) 등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Bandura(1986)는 자기효능감 기대가 개인의 행동 선택과 수행 및 행위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며 행동과 행동변화 사이의 주요 매개변인이 된다고 하였으며, 여러 경험적 연구들을 통해서도 진로발달과정에 있는 사람들의 진로상담에 있어 진로탐색에 대한 효능감 기대를 증진시키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Solberg, Good, Fischer, Brown, & Nord, 1995). 이는 진로상담에 있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는 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진로상담영역에 있어서 진로미결정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위와 같은 중요성에 주목하고, 진로미결정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진로의사결정문제를 나타내는 변인으로 채택하였으며, 이 두 변인의 선행변인을 탐색함으로써 개입 가능한 차원에서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Downing & Nauta, 2010).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경우, 진로결정수준을 예측하기 때문에 여러 경험적 연구들(이기학, 이학주, 2001; 이은경, 2001; Hackett & Betz, 1992)에서 진로미결정의 선행변인으로 다뤄져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진로미결정은 진로의사결정문제의 행동적 차원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행동

적 차원으로 나타나기 이전의 인지적 차원의 지표로 이해하고, 진로의사결정문제를 행동적 차원과 인지적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Taylor와 Betz(1983)가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달리 특정 영역인 진로 문제와 관련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있다고 제안한 개념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측정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다섯 가지 하위 요인 중 직업정보 수집은 관심 있는 직업을 찾아내고 그 직업의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효능감을, 목표설정은 진학과 취업 등에 대해 미리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미래계획수립은 진로 목표에 따라 논리적으로 미래의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문제해결은 진로결정 과정에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자기평가는 자신의 능력과 가치, 욕구 등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그에 적합한 직업을 찾아낼 수 있다는 효능감을 가리킨다.

이러한 진로의사결정문제(진로결정수준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선행변인으로 애착을 들 수 있다. 전 생애 발달 관점에서도 부모와의 초기 애착관계의 중요성을 강조(Kenny, 1987; Lapsley, Rice, & Shadid, 1989)하며, 특히 우리나라는 관계 중심적인 경향이 강해 부모-자녀 관계에 있어서도 정서적 상호작용이 강조되어 후기 청소년기까지의 심리적 발달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박수길, 이영희, 2002). 애착이론에서는 유아가 초기 양육자와의 관계 경험을 통해 자신과 타인, 세상을 이해하는 내적 작동모델을 발달시키며, 이를 바탕으로 대인 관계양식이나 자기가치감 등이 결정된다고 보

는데(Ainsworth, 1989; Bartholomew & Horowitz 1991), Blustein 등(1995)에 의하면 애착관계를 통해 형성된 내적작동모델은 자기개념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진로선택과정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한편 성인애착은 애착과 관련된 성인기 외부세계나 타인표상을 지칭하는 것으로서(Brennan, Clark, & Shaver 1998), 인간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애착대상은 변화하고 양상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성인기의 대인관계패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이성 관계, 친밀한 타인과의 애착관계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여러 애착이론가들의 주장이다(Cook, 2000; Overbeek, Volebergh, Engels, & Meeus, 2003).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애착의 특성을 측정하는데 있어 성인애착의 개념을 따르고자 한다. 성인애착은 다시 ‘애착불안(attachment anxiety)’과 ‘애착회피(attachment avoidance)’ 두 차원으로 구분되며(Brennan et al., 1998),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수준이 높을수록 애착관계가 불안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안정애착이 성공적인 진로발달을 예측하는 것과 반대로, 불안정애착은 진로발달의 부정적인 특징들과 높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애착 관계가 불안정할수록 역기능적인 진로 사고의 수준이 높고(Van Eecke, 2007), 진로미결정 수준이 높으며(Downing & Nauta, 2010; Tokar et al., 2003), 진로선택의 어려움을 많이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okar, Withrow, Hall, & Moradi, 2003; Vignoli, 2009). 또한 애착이 불안정한 사람들은 직무현장에서도 안정애착인 사람들에 비해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Hazan & Shaver, 1990). 이처럼 많은 연구들에서 진로발달에 있어 불안정애착이 안

정애착과는 반대로 진로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확인되어 왔다. 그러나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중 어떤 차원이 진로발달과정과 관련이 높은지 구체적으로 밝힌 연구는 적으며, 두 요인이 각각 어떠한 방식으로 진로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밝힌 연구 또한 많지 않다.

애착불안은 거절당하거나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관계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것을 나타내는 반면, 애착회피는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을 불편해하고 꺼리는 것을 의미한다(Brennan et al., 1998; Wei, Heppner, Russell, & Young, 2006). 이러한 특성에 기인하여 두 차원 모두 타인과의 관계형성에 있어 불편감을 경험하고, 안정적인 자기개념을 발달시키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나, 그 과정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애착불안은 자기 및 타인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여 부정정서를 자주 경험하며, 이러한 부정정서가 자기발달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반면, 애착회피는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에 대해 불편함을 느껴 정서적인 교류를 미리 차단하고, 스트레스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Mikulincer & Shaver, 200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인애착과 진로의사결정문제와의 관계를 확인하는데 있어, 안정애착과 불안정애착을 비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안정애착의 차원을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로 구분하고 각각의 요인이 진로의사결정문제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진로의사결정문제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선행변인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정서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진로와 관련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인지적 측면에만 초점을 두어 왔으며,

정서가 진로 상담 과정의 중요한 부분으로 고려되지 않았던 경향이 있었다(Tracy, 2007). 그러나 현대 사회에 들어서면서부터 사회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합리성과 이성만으로 진로 발달을 설명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고, 진로의사결정과 진로발달에 있어 직관과 정서, 관계적 맥락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Hartung & Blustein, 2002; Phillips, 1994; Savickas, 1993). 실제로도 정서적 요인은 진로 결정 유형을 구분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같은 유형이라고 하더라도 진로태도나 행동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보다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대학생들이 진로미결정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인지적 요인뿐만 아니라 정서적 불안정성과 같은 비인지적 요인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Tak & Lee, 2003). 또한 정서와 진로 결정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다른 연구(Caruso & Wolfe, 2001)에서도, 정서가 진로 발달과 진로선택과 진로관련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사결정과정에서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은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는 반면, 부정적인 정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비합리적인 결정을 하기 쉬운 것으로 보고되었다. 진로의사결정과정에서의 정서의 중요성을 반영하듯, 국내에서도 최근 들어 진로와 정서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연구들은 주로 정서지능과 진로변인과의 관계에 대한 것들이 주를 이루었다(강주영, 2006; 이중희, 2006; 유나현, 2005).

그러나 앞서 제시한 근거들에 기인할 때, 정서지능으로서의 정서뿐만 아니라, 진로의사

결정문제와 정서의 관계에 대해 보다 다양하고 넓은 차원에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간과되어온 정서에 주목하여, 다양한 차원에서 정서의 역할을 탐색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진로와 관련한 정서나 특질적인 정서가 진로의사결정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인지적 요소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행동적 차원인 진로미결정에는 차별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진로의사결정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애착과는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 보다 탐색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Brown 등(2003)도 진로결정과정에서 효능감 차원을 이해하기 위한 시도로 정서의 역할을 고려하는 것의 의의를 밝힌바 있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요인이 진로의사결정문제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정서적 어려움은 심리적 디스트레스와 부정적인 정서를 쉽게 경험하게 되는 경향성을 일컫는 것으로, 최근 이루어진 연구들에서도 진로결정문제의 주된 선행요인으로 밝혀지고 있다. Brown과 Rector(2008)의 연구에서 진로미결정의 가장 주된 요인은 부정적인 성격특성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에도 상태 불안, 특성불안, 신경증, 낮은 자존감, 우울 정서, 외부통제소재, 비관주의 등이 포함되었다. Saka, Gati, & Kelly(2008)의 연구모형에서는 부정적 정서·성격 측면인 불안, 비관주의 등으로 인해 촉발되는 부정적인 정서가 진로미결정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어려움 중 불안과 비관주의에 주목하고자 한다. 불안 및 비관주의와 진로의사결정문제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경험적으로도 많이 이루어져 왔다. 진

로의사결정문제는 높은 수준의 상태 불안 및 특성 불안(Campagna & Curtis, 2007; Corkin, Arbona, Coleman, & Ramirez, 2008; Fuqua, Newman, & Seaworth, 1988; Gati et al., 2011; Santos, 2001) 및 높은 수준의 비관주의 특성(Larson, Heppner, Ham, & Dugan, 1988; Rottinghaus, Jenkins, & Jantzer, 2009; Saunders, Peterson, Sampson, & Reardon, 2000)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어 왔다.

정서적 어려움은 다시 특성(trait) 측면과 상태(state)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특성 불안(trait anxiety)은 다양한 상황에서 불안을 경험하는 일반적인 경향성을 일컬으며(Spielberger, Gorsuch, & Lushene, 1983), 특성 비관주의(trait pessimism)는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적 측면에 주목하는 성격 경향성을 의미한다(Scheier, Carver, & Bridger, 1994). 긍정적인 정서 특질은 진로만족과 정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며, 부정적 정서 특질은 진로만족과 부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ounsbury et al., 2007; Lounsbury et al., 2008). 일반적으로 불안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 등에 의해 초래되는 것으로, 적당한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일의 효율성을 증가시키지만, 심해질 경우 과업 수행능력을 떨어뜨리게 된다. 특성 불안과 관련한 진로 연구들을 살펴보면, 불안과 자기효능감이 진로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안과 진로결정에 유의미한 상관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O'Hare & Tamburri, 1986). 한편, 상태 불안(state anxiety)은 특정 상황에서 경험하는 구체적인 불안을 의미하며,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불안의 수준이 조절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Spielberger, 1972). 비슷한 맥락에서 상태 비관주의(state pessimism)란

특정 상황에서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 갖는 부정적 관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특정 상황을 진로관련 의사결정과정으로 보고, 상태 불안과 상태 비관주의를 측정하는데 있어, Saka 등(2008)이 제안한 개념을 활용하고자 한다. Saka 등(2008)은 진로결정관련 정서적 성격적 어려움에 중점을 두고 진로의사결정의 어려움을 예측하는 요인들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에는 진로선택관련 비관적 관점,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양상과 관련된 불안, 낮은 수준의 자아정체감 및 불안정한 자기개념의 세 가지 하위요소가 포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aka 등(2008)이 개발하고 국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민경희(2012)가 타당화한 진로 관련 개인의 정서를 측정하는 EPCD 척도(Emotional and Personality Career Difficulties scale)를 활용하여 대학생들의 상태 불안 및 상태 비관주의를 측정하였으며, 특성 불안 및 특성 비관주의, 상태 불안 및 상태 비관주의가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끼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서적 어려움은 많은 연구들에 의해 불안정애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증명되어왔다. 일찍이 Bowlby(1988)는 불안정애착은 불안정한 정서를 촉발하고, 이러한 정서가 자신과 타인 및 외부 세계에 대해 갖는 비관적 관점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경험적인 연구에서도 안정애착인 사람들은 정서적 자기조절, 관계 행동, 인지적 과정 등에서 적응적이고 긍정적인 반면, 불안정애착인 사람들은 부적응적이고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Lopez & Brennan, 2000). 그러나 애착불안에 비해 애착회피 차원 경우 부적 정서와의 관련성이 일

관적으로 보고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애착 불안은 정서적 어려움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이러한 정서적 어려움이 진로의사결정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매개모형을 가정할 수 있으나, 애착회피의 경우 정서적 어려움을 매개로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진로의사결정문제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이루어진 한 연구에서도 (Braunstein-Bercovitz, Benjamin, Asor, & Lev, 2012), 애착불안은 상태 불안 및 상태 비판주의에 의해 완전매개되어 진로결정수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반면, 애착회피는 불안 및 비판주의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위와 같은 선행 연구 결과 및 개념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불안정한 애착 특성이 부정적인 정서 경험을 촉진시킴으로써 높은 수준의 진로미결정이나 낮은 수준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같은 진로의사결정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고, 불안정애착 요인 중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의 차이를 확인하고, 정서적 어려움과는 각각 어떠한 방식으로 연관되어 있는지, 더불어 Braunstein-Bercovitz 등 (2012)의 연구에서 보고된 결과와 국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문화적 차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대표적인 진로발달이론인 사회인지진로이론(Lent et al., 1994)에서 진로의사결정과정에서 애착이나 정서와 같은 개인의 특질적인 성향뿐만 아니라, 문화 맥락적인 요인들이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진로목표 및 진로목표의 실행에 영향을 주는 문화 맥락적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즉, 서구문화권과 다른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

수성에 따른 차이가 대학생들의 학습경험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러한 학습경험이 진로결정과 관련한 자기효능감 및 결과 기대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진 바에(Swanson & Fouad, 1999) 기인한다. 또한 선행변인이 되는 애착의 경우 문화적 차이의 영향을 많이 받는 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여러 연구들에서 각 문화권에 따라 애착유형의 분포가 달라질 수 있음이 연구되어 왔으며(임정선, 2007), 애착이 진로발달과정에 끼치는 영향 또한 다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비교연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Leong과 Chou(1994)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서구문화권의 젊은이들은 개인적 주장에 따라 진로선택을 하는 반면,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진로선택은 자신들의 흥미를 만족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의 수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주의적, 집단주의적 가치가 강한 우리나라(유성경, 유정이, 2000)에서는 중요한 타인 중 하나인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진로발달에 특히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왔다(서진희, 이계경, 2009; 양승민, 2003; 이은경, 2001).

한편, Braunstein-Bercovitz 등(2012)의 연구에서 진로미결정만을 종속변인으로 분석하고 있는 반면, 본 연구에서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진로의사결정문제의 인지적 차원으로 구성하여 추가 분석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미결정 수준에 영향을 끼치는 선행변인으로써 뿐만 아니라, 독립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중요 진로 변인이라는 점, 그동안 진로연구에서 정서의 중요성에 불구하고 정서와 관련된 연구가 부족하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정서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많지 않다는 점,

애착불안 및 애착회피의 두 가지 요인이 독립적으로 진로의사결정문제에 영향을 끼칠 때 인지적 차원과 행동적 차원에 각각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 특히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완수경험, 대리 경험, 사회적 설득, 생리적이고 정서적인 상태의 네 가지 경험적 정보의 상호작용을 통해 획득되거나 수정되는 것으로 (Bandura, 1977), 진로미결정과 독립적 차원에서 정서와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는 진로의사결정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둘째, 애착불안 및 애착회피는 정서적 어려움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셋째,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는 정서적 어려움과 관련하여 각각 다른 경로를 통해 진로의사결정문제에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에 따른 연구가설을 그림 1에 제시하였으며,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다. 첫째, 대학생들의 애착불안과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불안 및 비관주의 사이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을 것이다. 둘째, 대학생들의 애착회피와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사이에는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을 것이나, 불안 및 비관주의와는 관련이 없을 것이다. 셋째, 애착불안과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불안과 비관주의가 매개할 것이다. 넷째, 애착회피는 직접적으로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다섯째, 애착불안 및 애착회피 수준에 따라 분류한 성인애착유형에 따라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정서적 어려움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소재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학생은 204명(남 94명, 여 110명)이었으며,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14명(남 9명, 여 5명)을 제외하고 총 19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성별 분포를 보면, 190명 중 남학생이 85명(44.7%), 여학생이 105명(55.3%)으로 여학생의 참여비율이 더 높았으며, 평균 연령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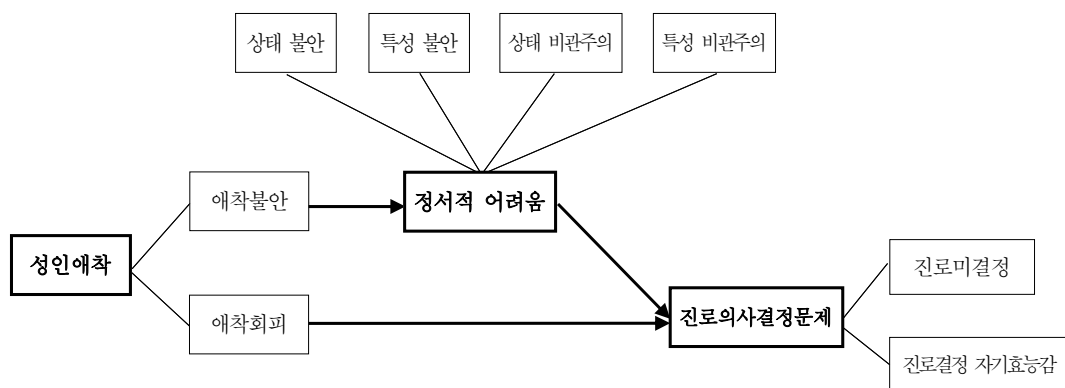


그림 1. 성인애착과 진로의사결정문제와의 관계에서 정서적 어려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모형

21.6세($SD = 2.28$)였다. 학년 분포는 1학년 29명(15.3%), 2학년 51명(26.8%), 3학년 49명(25.8%), 4학년 61명(32.1%)이었다. 연구 참가자들에게는 연구자가 속한 학과 연구 윤리위원회로부터 연구의 목적과 방법, 위험요소, 정보 보호 등에 관해 사전 심의와 승인을 받은 내용을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구하였다.

측정도구

친밀관계경험척도 개정판(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 Scale-Revised: ECR-R)

대학생들의 성인 애착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성현(2004)이 번안한 친밀관계경험척도 개정판(ECR-R)을 사용하였다. ECR-R은 Brennan, Clark, 그리고 Shaver(1998)가 기존에 있던 성인 애착척도들의 문항들을 메타 분석하여, 성인 애착이 불안과 회피, 두 개의 상호 독립적인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밝히고 성인애착을 질적으로 구분하고자 개발한 것을, 이후 문항 반응이론을 통해 Fraley, Waller과 Brennan(2000)이 개정한 척도이다. 본 척도는 성인애착의 독립적인 하위 차원인 ‘애착불안’, ‘애착회피’의 두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요인이 18문항씩으로 총 36문항이다. 친밀한 관계에서 경험하는 여러 측면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까지, 7점 리커트식 척도에 평정하도록 되어있으며, 각 차원의 점수의 합이 낮을수록 안정적인 애착을 의미하고,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의 수준이 높은 것을 뜻한다. 김성현(2004)의 연구에서 애착불안의 내적일관성 계수(Cronbach's α 는 .89, 애착회피는 .85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애착불안은 .94, 애착회피는 .92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척도(Career Decision Scale: CDS)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고향자(1992)가 번안한 진로결정척도(CDS)를 사용하였다. CDS는 Osipow, Carney, Winer, Yanico와 Koshier(1976)가 개발한 척도로, 개인의 진로 확신 수준을 측정하는 2문항, 진로결정에 방해가 되는 장애요소 및 진로미결정 정도를 측정하는 16문항, 자유 반응형 1문항의 총 19문항으로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 확신 수준을 측정하는 2문항은 제외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진로 미결정 정도를 나타내는 16문항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자유 반응형 문항의 경우 앞에서 반응한 내용을 명료화해주는 기능을 하며 채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CDS는 본래 4점 리커트식 척도로 평정되나, 종속변인의 경우 선택의 폭이 제한되면 통계 검정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Frazier et al., 2004), 본 연구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의 7점 리커트식 척도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Osipow 등(1976)의 연구에서의 CDS 내적일관성 계수는(Cronbach's α 는 .90이었으며, 고향자(1992)의 연구에서는 .86으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6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단축형(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hort Form: CDMSES-SF)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은진(2001)이 번안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단축형(CDMSES-SF)을 사용하였다. CDMSES-SF는 Taylor와 Betz(1983)가 50문항으로 개발한 것을, Betz, Klein과 Taylor(1996)가 25문항으로 단축하여 만든 척도로, 진로결정 과정에서 요구되는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개인의 믿음 수준을 측정하며 직업정보 수집, 목표설정, 미래 계획수립, 문제해결, 자기평가의 하위 영역이 각각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Betz와 Voyten(1997)의 연구에서 CDMSES-SF의 내적일관성 계수(Cronbach's α)는 전체 척도가 .93, 하위척도가 .69 ~ .83의 범위로 나타났으며, 이은진(2001)의 연구에서는 전체 척도 .92, 하위척도별로 직업정보 수집 .81, 목표설정 .85, 미래계획수립 .84, 문제해결 .74, 자기평가 .83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관성 계수는 전체 척도가 .88, 직업정보 수집 .65, 목표설정 .69, 미래계획수립 .63, 문제해결 .76, 자기평가 .64로 나타났다.

상태-특성 불안 검사(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

대학생들의 특성 불안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한덕웅, 이창호, 탁진국(1993)이 표준화한 STAI 하위요인 중 특성 불안 척도만을 사용하였다. STAI는 Spielberger, Gorsuch와 Lushene(1970)이 개발한 척도로 상태 불안과 특성 불안의 두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20문항씩 총 40문항이다. STAI에서의 상태 불안은 ‘긴장과 불안에 대해 주관적이고 의식적으로 지각된 감정으로 자율신경계의 활동을 고조시키는 것’을 일컬으며, 현재의 기분상태를 측정한다. 특성 불안은 ‘과거, 현재, 미래의 불안 경향성의 빈도와 강도에 있어서 비교적 안정된 개인적 차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상적으로 느끼는 기분의 성향을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 결정과 관련한 상태 불안을 측

정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STAI의 상태 불안 요인은 활용하지 않았으며, 개인의 성격특질적인 불안을 나타내는 특성 불안만을 측정하는 도구로 활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리커트식 척도로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한덕웅 등(1993)의 연구에서 특성 불안의 내적일관성 계수(Cronbach's α)는 .89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90으로 나타났다.

삶의 지향성 검사 개정판(Life Orientation Test-Revised: LOT-R)

대학생들의 특성 비관주의를 측정하기 위하여 김세희(2003)가 번안 및 개정한 삶의 지향성 검사 개정판(LOT-R)을 사용하였다. LOT-R은 Scheier & Carver(1985)가 LOT를 개발한 것을, Scheier와 Bridges(1994)가 수정, 보완한 척도로, 낙관주의와 비관주의의 차원이 독립적이라는(Isaacowitz, 2001), 전제 하에 낙관주의를 측정하는 3문항, 비관주의를 측정하는 3문항, 설문 응답자들이 질문지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끼워 넣은 문항(filler item) 4문항,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중 개인의 성향적인 비관성을 측정하는 3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비관주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Creed, Patton, & Bartrum(2002)의 연구에서 비관주의 문항의 내적일관성 계수(Cronbach's α)는 .78이었으며, 김정수(2008)의 연구에서는 .60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69로 나타났다.

정서 성격적 진로문제척도(Emotional and Personality related Career Difficulties

Questionnaire: EPCD)

진로결정과 관련한 대학생들의 상태 불안 및 상태 비관주의를 측정하기 위하여 민경희(2012)가 번안 및 타당화 한 정서 및 성격적 진로의사결정문제 측정도구(EPCD)를 사용하였다. EPCD는 Saka, Gati, & Kelly(2008)가 개발한 척도로 진로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어려움과 관련한 심리적 요인을 측정하며, 세 하위척도(비관적 관점 10문항, 불안 20문항, 자아개념 및 정체감 7문항)와 연습 문항 1문항, 타당도 문항 2문항의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비관적 관점과 불안을 측정하는 30문항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비관적 관점 10문항은 직업기대과 보상에 대한 비관적 관점 4문항, 진로결정에서의 외부통제 6문항의 2개의 소 하위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불안 20문항은 과정에 대한 불안 3문항,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 6문항, 책임에 대한 불안 11문항의 소 하위척도로 구분된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9점)까지의 9점 리커트식 척도로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의사결정과 관련한 어려움에 대한 주관적 감각 인식이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민경희(2012)의 연구에서 내적일관성 계수(Cronbach's α)는 비관적 관점이 .81로, 불안이 .96으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각 .80과 .94로 나타났다.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 및 SPSS Macro를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첫째,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각 척

도별 내적일관성 계수(Cronbach' α)를 도출하였다. 둘째, 주요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등의 통계를 산출하여 기술적 경향을 파악하였고, 측정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이변량 상관관계수 및 편상관계수를 구하였다. 셋째, 진로미결정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정서적 어려움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회귀분석결과를 토대로 성인애착과 진로미결정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에서 정서적 어려움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다중매개효과 분석을 위해 SPSS Macro(Preacher & Hayes, 2008)를 활용하였으며, Bootstrapping 방법을 통해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K-평균 군집분석을 통해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수준에 따라 성인애착 유형을 네 가지(안정형, 의존형, 거부형, 두려움형)로 구분하였고, 이러한 성인애착 유형에 따라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주요 매개변수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다변량분석과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결 과

기초자료분석

측정변수들의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우선 측정 자료의 정규성에 대해 살펴보면, 정규성 기준에 대해 Curran, West & Finch(1996)는 왜도는 절대 값 3 이내, 첨도는 절대 값 8 ~ 20 이내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Hong, Malik, & Lee(2003)는 왜도는 절대 값 2 이내, 첨도는 절대 값 7 이내의 기준

표 1. 측정변수들의 상관 및 기술통계

(N = 190)

	1	2	3	3a	3b	3c	4	5	5a	5b	6	7	8	8a	8b	8c	8d	8e
1. 애착불안	-																	
2. 애착회피	.42***	-																
3. 상태 불안	.49***	.23**	-															
a. 과정에 대한 불안	.40***	.16*	.71***	-														
b.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	.45***	.16*	.88***	.57***	-													
c. 책임에 대한 불안	.43***	.25***	.95***	.57***	.74***	-												
4. 특성 불안	.72***	.47***	.52***	.46***	.40***	.49***	-											
5. 상태 비관주의	.41***	.36***	.58***	.42***	.52***	.55***	.38***	-										
a. 직업기대와 보상에 대한 비관적 관점	.27***	.19***	.55***	.42***	.52***	.49***	.25***	.76***	-									
b. 진로결정에서의 외부통제	.40***	.37***	.45***	.31***	.38***	.44***	.36***	.89***	.38***	-								
6. 특성 비관주의	.40***	.30***	.19*	.16*	.20**	.16*	.42***	.25***	.12	.27***	-							
7. 진로미결정	.33***	.12	.63***	.49***	.63***	.55***	.29***	.65***	.55***	.55***	.18*	-						
8.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33***	-.31***	-.45***	-.36***	-.41***	-.41***	-.40***	-.56***	-.42***	-.50***	-.18*	-.53***	-					
a. 직업정보 수집	-.20**	-.24***	-.31***	-.24***	-.31***	-.26***	-.23***	-.41***	-.35***	-.35***	-.03	-.42***	.77***	-				
b. 목표설정	-.27***	-.14*	-.54***	-.43***	-.50***	-.48***	-.31***	-.59***	-.42***	-.54***	-.15*	-.61***	.74***	.41***	-			
c. 미래계획수립	-.29***	-.30***	-.35***	-.27***	-.36***	-.29***	-.30***	-.43***	-.38***	-.35***	-.20**	-.43***	.85***	.71***	.49***	-		
d. 문제해결	-.23***	-.24***	-.17*	-.15*	-.07	-.19*	-.36***	-.24***	-.14*	-.24***	-.15*	-.16*	.68***	.36***	.30***	.47***	-	
e. 자기평가	-.26***	-.25***	-.38***	-.29***	-.34***	-.36***	-.35***	-.47***	-.33***	-.44***	-.16*	-.43***	.82***	.48***	.66***	.62***	.42***	-
M	64.67	66.77	108.28	17.76	31.34	59.03	47.27	41.88	21.54	20.34	6.82	58.1	85.11	16.74	16.99	16.48	17.49	17.41
SD	19.48	17.11	31.58	6.03	10.10	19.17	10.20	11.76	5.78	8.26	2.16	15.49	11.71	3.03	3.13	3.03	3.24	2.81
왜 도	.194	.145	-.401	.322	-.229	-.387	.082	-.097	-.636	.487	.670	-.070	-.180	-.130	-.279	-.018	-.268	-.553
첨 도	-.252	-.279	-.015	1.133	-.357	-.163	-.326	-.062	.489	.341	.804	-.320	.789	.102	-.093	-.142	-.170	.571

* $p < .05$. ** $p < .01$. *** $p < .001$

을 만족하는 경우에 단변량 정규성의 정상성을 가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Kline(2010)은 왜도는 절대 값 3 이내, 첨도는 절대 값 10 이내 일 때, 정상성 가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의 결과에서 왜도의 경우 $-.636 \sim .670$ 사이에 분포하고, 첨도는 $-.357 \sim 1.133$ 사이에 분포하여 변수들의 왜도와 첨도가 모두 정상성 가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변인들이 모두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으며, 단변량 정상성이 성립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연구 참여자들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면, 5점 리커트 척도로 환산한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의 평균 점수가 각각 3.6, 3.7점으로 애착불안 및 애착회피의 정도가 다소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상태불안 및 상태비관주의는 각각 3.0, 2.3점이며, 특성불안 및 특성비관주의는 각각 2.4, 2.3점으로 나타나 상태불안을 제외하고 그 외의 정서는 5점 리커트 상의 평균보다 다소 낮은 편에 속했다. 진로미결정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각각 3.6, 3.4점으로 진로미결정 정도는 높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 역시 5점 리커트 상의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성인애착 하위 유형 중 애착불안은 진로미결정($r = .33, p < .001$)과 정적 상관을 보여 애착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애착회피와 진로미결정 사이의 상관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성인애착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에서는 애착불안($r = -.33, p < .001$)과 애착회피($r = -.31, p < .001$) 모두 부적 상관을 보여, 애착불안 및 애착회피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인애착과 정서적 어려움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상태 불안과 애착불안($r = .49, p < .001$), 애착회피($r = .23, p < .01$)가 모두 정적 상관을, 특성 불안과 애착불안($r = .72, p < .001$), 애착회피($r = .47, p < .001$)가 모두 정적 상관을 보고하고 있어, 성인애착이 불안정할수록 진로결정과 관련한 불안 및 일상에서의 불안을 높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관성과의 관계에서도 상태 비관주의와 애착불안($r = .41, p < .001$), 애착회피($r = .36, p < .001$)가 모두 정적 상관을, 특성 비관주의와 애착불안($r = .40, p < .001$), 애착회피($r = .30, p < .001$)가 모두 정적 상관을 보고하고 있어, 성인 애착이 불안정할수록 진로결정에 있어서 비관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평소에도 높은 수준의 비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사이에 높은 정적 상관이 보고되고 있는 바($r = .42, p < .001$), 각각 다른 변수들과의 관계에서 애착회피와 애착불안을 통제하여 서로 간의 상호상관효과를 제거한 후, 다른 변인들과의 상관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편상관 분석(partial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애착불안의 경우 변인들과의 관계에서 상관의 정도가 다소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유의한 수준에서($p < .001$)의 상관이 유지되어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애착회피의 경우, 애착불안을 통제하기 이전에 유의했던 상관관계가 더 이상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거나, 상관의 정도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를 통합하여 불안정애착으로 간주하거나, 애착불안을 통제하지 않고 애착회피와 진로변인들과의 관련성을 살펴볼 경우 결과 해석에 타당성

이 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를 나누어 각 차원의 영향력을 살펴보았으며, 각각 서로 다른 차원을 통제하여 분석함으로써 두 요인 사이의 높은 상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줄이고자 하였다.

성인애착과 진로결정과의 관계에서 정서적 어려움의 매개효과

성인애착과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에서 정서적 어려움(상태 불안, 특성 불안, 상태 비관주의, 특성 비관주의)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Preacher와 Hayes(2008)가 제안한 SPSS Macro를 활용하여 다중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법은 여러 단계를 걸쳐 분석을 실시해야 하는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분석 방법에 비해 간단하며, 여러 매개변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이를 통해 도출된 간접 경로계수와 직접 경로계수의 각 효과계수는 다른 매개변수의 설명량을 반영하여 계산된다. 여기서의 경로계수는 회귀분석에서의 회귀 계수와 같은 의미로, 예측 변인이 1단위 변화할 때 종속 변인의 변화량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Preacher & Hayes, 2008).

이를 위해 우선 상태 불안, 특성 불안, 상태 비관주의, 특성 비관주의를 예측변인으로 하고, 진로미결정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매개변인을 선정하였다. 먼저, 정서적 어려움의 설명력을 살펴보면, 진로미결정에 대해서는 정서적 어려움이 53%의 설명력을 갖는 반면 ($R^2 = .53, p < .00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해서 정서적 어려움이 36%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R^2 = .36, p < .001$). 따라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비해 진로결정수준에 있어 정서적 어려움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진로미결정에 대해서는 정서적 어려움 중 상태 불안($\beta = .42, p < .001$)과 상태 비관주의($\beta = .44, p < .001$)만이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해서는 특성 불안($\beta = -.21, p < .01$)과 상태 비관주의($\beta = -.43, p < .001$)만이 유의한 부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끼치는 정서적 어려움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진로미결정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각각의 다중매개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의 표 2와 3 및 그림 2와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애착불안과 진로미결정과의 관계에서 애착불안은 매개변인인 상태 불안(.77), 상태 비관주의(.19)에 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진로미결정(.27)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태 불안(.18)과 상태 비관주의(.64)는 진로미결정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애착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상태 불안 및 상태 비관주의의 수준이 높아지며, 높은 수준의 상태 불안 및 상태 비관주의는 높은 진로미결정을 예측한다고 할 수 있다. 매개변인인 상태 불안과 상태 비관주의를 고려한 상태에서 애착불안이 진로미결정에 끼치는 영향력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효과크기가 감소(.00)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애착불안과 진로미결정 사이의 관계는 정서적 어려움에 의해 완전매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성인애착과 진로미결정과의 관계에서 상태 불안과 상태 비관주의의 매개효과

독립변인	계수구분	매개변인	계수	SE	t	매개효과
애착불안 (애착회피 통제)	독립→ 매개(a)	상태 불안	.77	.11	6.72***	완전매개
		상태 비관주의	.19	.04	4.42***	
	매개→ 종속(b)	상태 불안	.18	.03	5.70***	
		상태 비관주의	.64	.09	7.46***	
	독립→ 종속(c)	[직접효과]	.27	.06	4.39***	
	독립→ 종속(c')	[매개변인고려]	.00	.05	.07	
애착회피 (애착불안 통제)	독립→ 매개(a)	상태 불안	.05	.13	.40	간접효과만 유의한 매개
		상태 비관주의	.15	.05	3.14**	
	매개→ 종속(b)	상태 불안	.18	.03	5.70***	
		상태 비관주의	.64	.09	7.46***	
	독립→ 종속(c)	[직접효과]	-.02	.07	-.28	
	독립→ 종속(c')	[매개변인고려]	-.13	.05	-2.46*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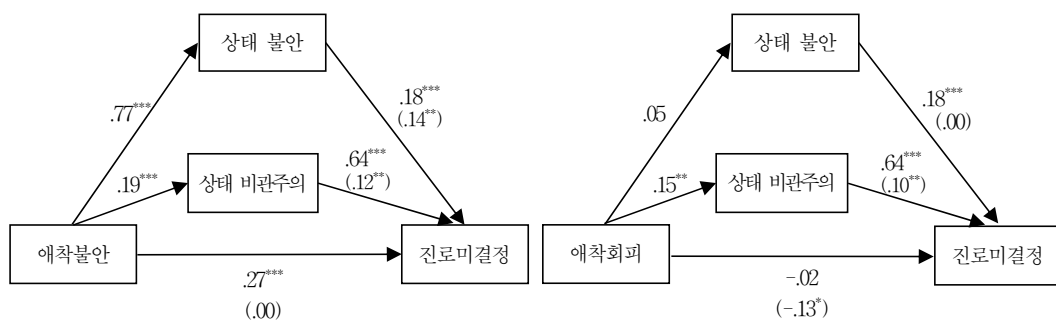


그림 2. 성인애착과 진로미결정과의 관계에서 상태 불안 및 상태 비관주의의 다중매개효과 모형

※ ()안의 숫자는 매개변인이 고려된 간접효과계수임.

애착회피와 진로미결정과의관계에서 애착회피는 매개변인인 상태 불안에는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으며, 진로미결정에도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태 비관주의(.15)에는 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매개변인인 상태 비관주의를 고려한 상태에서 애착회피가 진로미

결정에 끼치는 영향력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효과크기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13)되어, 애착회피와 진로미결정과의 관계에 직접적인 효과는 존재하지 않으나, 상태 비관주의에 의해 매개될 경우 애착회피도 진로미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매개변인인 상태 비관주의가 고려될 때에만 애착회

표 3. 성인애착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특성 불안과 상태 비관주의의 매개효과

독립변인	계수구분	매개변인	계수	SE	t	매개효과
애착불안 (애착회피 통제)	독립→ 매개(a)	특성 불안	.33	.03	11.67***	완전매개
		상태 비관주의	.19	.04	4.42***	
	매개→ 종속(b)	특성 불안	-.29	.10	-2.89**	
		상태 비관주의	-.47	.07	-7.07***	
	독립→ 종속(c)	[직접효과]	-.14	.04	-3.22**	
	독립→ 종속(c')	[매개변인고려]	.04	.05	.79	
애착회피 (애착불안 통제)	독립→ 매개(a)	특성 불안	.12	.03	3.70***	완전매개
		상태 비관주의	.15	.05	3.14**	
	매개→ 종속(b)	특성 불안	-.29	.10	-2.89**	
		상태 비관주의	-.47	.07	-7.07***	
	독립→ 종속(c)	[직접효과]	-.14	.05	-2.76**	
	독립→ 종속(c')	[매개변인고려]	-.03	.05	-0.72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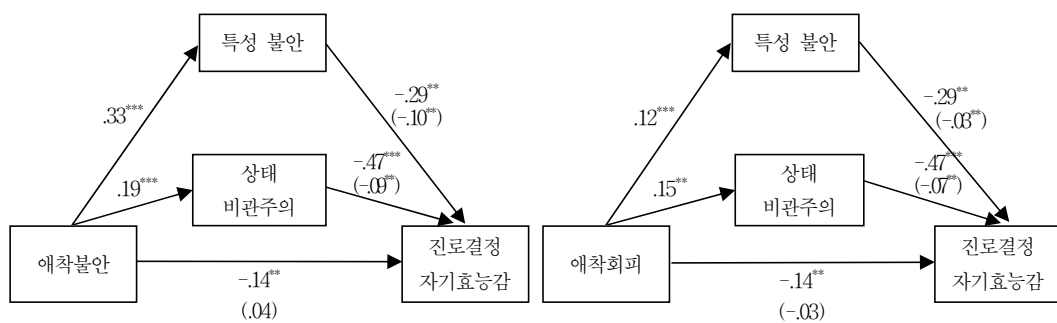


그림 3. 성인애착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특성 불안 및 상태 비관주의의 다중매개효과 모형
※ ()안의 숫자는 매개변인이 고려된 간접효과계수임.

피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가 유의미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간접효과를 나타내는 지수가 (-.13)로 부적 방향으로 유의하게 보고된 것은, 애착회피가 높을수록 상태비관주의 수준이 높고, 상태비관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상태비관주의가 고려되는 경우, 애착회피

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간접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분석 방법에서는 직접적인 효과크기(c)가 유의하지 않을 경우 매개효과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Sobel 검증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Sobel 검증의 경우, 간접효과(ab) 분포의 정규성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표본의 분포를 반영하지 못하여 통계적 검증력이 낮아진다는 한계가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활용하여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다. 부트스트래핑 방식은 표본 분포의 정규성을 가정하지 않고 통계적 모의 실험 절차를 통해 대규모 가상 무선 표본을 만든 후 매개효과의 유의성이 통계적 무선오차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Shrout & Bolger, 2002)함으로써, Sobel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검증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Preacher, Rucker, & Hayes, 2007). Zhao, Lynch & Chen(2010)에 의하면, 부트스트래핑 방식에 따라 간접효과를 검증할 경우 직접효과가 유의하지 않더라도 간접효과만 유의해도 매개효과를 이론화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들의 정의에 의하면 간접효과와 직접효과가 모두 양의 관계로 유의한 경우 Baron과 Kenny(1986)에 의해서 완전매개로 일컬어지는 것이 보완적 매개(complementary mediation)로 분류되며, 간접효과만 유의한 경우 간접효과만 있는 매개(indirect-only mediation)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정의를 따르면 위에서 본 애착불안과 정서적 어려움, 진로미결정의 관계는 보완적 매개가 되며, 애착회피와 정서적 어려움, 진로미결정의 관계는 간접효과만 있는 매개라고 할 수 있다. 즉, 애착회피는 직접적으로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상태 비관주의를 통해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애착불안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애착불안은 매개변인인 특성 불안(.33), 상태 비관주의(.19)에 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진

로결정 자기효능감(-.14)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성 불안(-.29)과 상태 비관주의(-.47)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애착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특성 불안 및 상태 비관주의의 수준이 높아지며, 높은 수준의 상태 불안 및 상태 비관주의는 낮은 수준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예측한다고 할 수 있다. 매개변인인 특성 불안과 상태 비관주의를 고려한 상태에서 애착불안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끼치는 영향력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효과크기가 감소(.00)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애착불안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사이의 관계는 정서적 어려움에 의해 완전히 매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애착회피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애착회피는 매개변인인 특성 불안(.12), 상태 비관주의(.15)에 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14)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애착회피 수준이 높을수록 특성 불안 및 상태 비관주의의 수준이 높아지며, 높은 수준의 상태 불안 및 상태 비관주의는 낮은 수준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예측한다고 할 수 있다. 매개변인인 특성 불안과 상태 비관주의를 고려한 상태에서 애착회피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끼치는 영향력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효과크기가 감소(-.03)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애착회피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사이의 관계도 정서적 어려움에 의해 완전히 매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도출된 다중매개모형에서의 간접효과 크기가 유의한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

표 4. 성인애착과 진로미결정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에서 매개효과 부트스트래핑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매개변수	Boot 계수	Boot SE	95% 신뢰구간	
					LLCI	ULCI
진로미결정	애착불안	전체	.26	.05	.16	.37
		상태 불안	.14	.03	.08	.21
		상태 비관주의	.12	.04	.05	.21
	애착회피	전체	.11	.05	.00	.22
		상태 불안	.01	.02	-.04	.06
		상태 비관주의	.10	.04	.02	.18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애착불안	전체	-.19	.04	-.28	-.11
		특성 불안	-.10	.03	-.16	-.04
		상태 비관주의	-.09	.03	-.15	-.04
	애착회피	전체	-.11	.04	-.19	-.04
		특성 불안	-.04	.02	-.07	-.01
		상태 비관주의	-.07	.03	-.14	-.02

LLCI: 95% 신뢰구간 내 매개효과 계수 하한값, ULCI: 95% 신뢰구간 내 매개효과 계수 상한값.

한 바와 같다. 본 절차에서 부트스트래핑으로 재추출된 표본수는 5,000개였으며, 95% 신뢰구간에서 구한 간접효과 계수의 하한값과 상한값을 확인하였다. 애착불안과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는 모든 구간에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태 불안과 상태 비관주의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Preacher et al., 2007). 반면 애착회피와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는 상태 불안이 매개변인으로 투입되는 경우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어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불안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 애착회피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는 모든 구간에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특성 불안, 상태 비관주의의 다중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성인애착유형별 진로미결정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차이

다중매개모형 분석을 통해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진로미결정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끼치는 경로에 차이가 있으며, 매개변인인 정서적 어려움과의 관계에서도 다른 양상을 나타내는 것이 확인된 바,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의 수준에 따라 분류한 성인애착유형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성인애착유형을 확인하기 위하여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두 차원을 기준으로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의 각 차원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불안과 회피가 모두 평균점수 이하인 경우 안정형(58명, 31%)으로, 불안은 평균점수보다 높고, 회피는 평균점수

표 5. 군집분석 분류에 따른 성인애착유형의 애착불안 및 애착회피 수준 (N = 190)

	M (SD)			
	1. 안정형 (n= 58)	2. 의존형 (n= 39)	3. 거부형 (n= 30)	4. 두려움형 (n= 63)
애착불안	-.97 (.50)	.49 (.43)	-.66 (.55)	.90 (.70)
애착회피	-.90 (.59)	-.64 (.43)	.73 (.62)	.88 (.62)

평균과 표준편차는 모두 표준점수화(Z)한 뒤 표기됨

표 6. 성인애착유형에 따른 진로미결정,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정서적 어려움의 차이 (N = 190)

	M (SD)				F	η^2	사후분석
	1. 안정형	2. 의존형	3. 거부형	4. 두려움형			
진로미결정	-.23 (.97)	.19 (.96)	-.34 (.91)	.26 (1.02)	4.23**	.06	4>1, 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44 (.86)	-.01 (1.06)	.05 (.92)	-.43 (.96)	8.62***	.12	4<1
상태 불안	-.46 (1.01)	.34 (.92)	-.30 (.82)	.35 (.92)	10.26***	.14	4>1, 3
특성 불안	-.87 (.71)	.29 (.74)	-.17 (.80)	.70 (.82)	44.38***	.42	4>1, 3
상태 비관주의	-.57 (.91)	.11 (.88)	-.11 (.85)	.51 (.94)	14.67***	.19	4>1, 3

평균과 표준편차는 모두 표준점수화(Z)한 뒤 표기됨

** $p < .01$. *** $p < .001$.

보다 낮은 경우 의존형(39명, 21%)으로, 불안은 평균점수보다 낮고, 회피는 평균점수보다 높은 경우 거부형(30명, 16%)으로, 불안과 회피가 모두 평균점수보다 높은 경우 두려움형(63명, 32%)으로 분류하였다. 각 유형별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의 표준화된 평균점수는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다. 이렇게 구분된 성인애착유형에 따라 진로미결정,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정서적 어려움 중 유의한 매개변인으로 확인된 상태 불안, 특성 불안, 상태 비관주의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성인애착유형을 독립변인으로, 진로미결정,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상태 불안, 특성 불안, 상태 비관

주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성인애착유형에 따라 진로미결정($F = 4.23, p < .01, \eta^2 = .06$), 진로결정 자기효능감($F = 8.62, p < .001, \eta^2 = .12$)에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유형간의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실시한 Bonferroni 사후분석결과를 보면, 진로미결정의 경우 두려움형은 안정형 및 거부형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의존형과는 유의한 차이가 보고되지 않았다. 반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에서는 두려움형이 안정형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의존형, 거부

형과는 유의한 차이가 보고되지 않았다. 즉,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모두 높은 두려움형의 경우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모두 낮은 안정형 애착유형에 비해 진로미결정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편 애착불안은 낮고 애착회피가 높은 거부형 애착유형(-.34)의 경우 두려움형에 비해 진로미결정수준이 유의미하게 낮고, 안정형(-.23)에 비해서도 평균점수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애착불안이 높고 애착회피가 낮은 의존형은 두려움형과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진로미결정에 있어 애착불안이 애착회피에 비해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애착불안 및 애착회피가 진로미결정과 관계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서로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진로미결정은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중 애착불안과 높은 관련이 있으며, 애착회피는 상태비관주의를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애착불안 수준이 낮고, 애착회피 수준이 높은 거부형의 경우 진로미결정 수준이 안정형과 마찬가지로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반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경우에는 두려움형이 안정형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수준을 보고하였으나 다른 유형 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진로결정수준에 비해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의 차원 간 영향력 차이가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그림 4에 나타난 그래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애착유형별로 진로미결정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표준화 평균점수를 비교해보면, 진로미결정의 경우 의존형과 거부형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경우에는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이중매개효과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는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모두 영향을 끼치게 되며, 두 요인 모두 특성불안과 상태 비관주의에 의해 완전 매개되므로, 애착불안만 높은 의존형과 애착회피만 높은 거부형의 평균점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성인애착과 진로미결정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변인으로 확인된 상태 불안, 특성 불안, 상태 비관주의가 성인애착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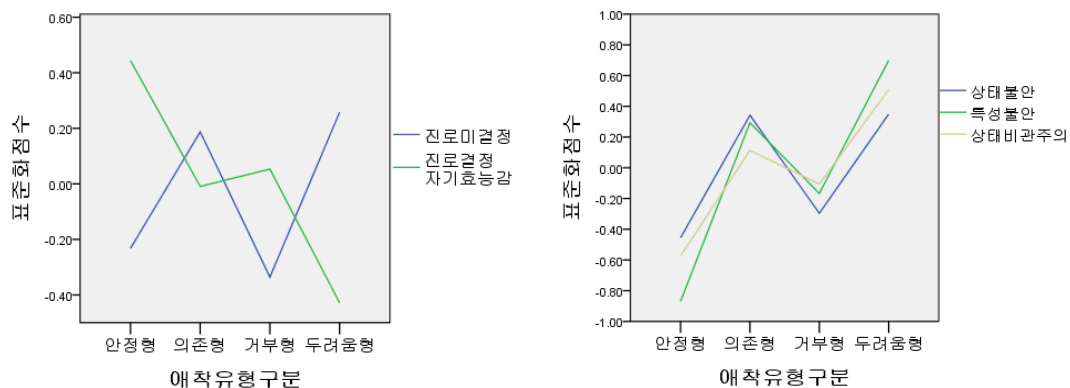


그림 4. 성인애착유형별 진로미결정,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정서적 어려움의 차이

확인해 본 결과, 상태 불안($F = 10.26, p < 0.01, \eta^2 = .14$), 특성 불안($F = 44.38, p < .001, \eta^2 = .42$), 상태 비관주의($F = 14.67, p < 0.01, \eta^2 = .19$)에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유형간의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실시한 Bonferroni 사후분석결과를 보면, 상태 불안, 특성 불안, 상태 비관주의 모두 두 두려움형은 안정형 및 거부형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의존형과는 유의한 차이가 보고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그림 4에 나타난 그래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애착불안 수준이 높은 의존형의 경우,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수준이 모두 높은 두려움형과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수준의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이러한 정서적 어려움이 진로결정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애착불안 수준은 낮고 애착회피 수준은 높은 거부형의 경우에는 진로결정과 관련한 정서적 어려움이나 특질적인 불안이 두려움형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애착불안 수준과 애착회피 수준에 따라 진로결정 수준이나, 진로결정과 관련한 정서적 어려움, 즉,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특질적·상황적 정서 변인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불안정애착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로의사결정문제에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았으며, 그 경로에서 정서적 어려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성인애착의 두 가지 하위 차원인 애착불안 및 애착회피와 진로미결정, 진로결

정 자기효능감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진로미결정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 어려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중매개효과분석을 통해 불안정애착과 진로의사결정문제와의 관계에서 정서적 어려움의 매개모형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애착불안 및 애착회피의 수준에 따라 대학생들의 성인애착유형을 군집화 하여 각각의 유형이 진로미결정,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정서적 어려움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자세히 논의한 바는 아래와 같다.

첫째, 측정변인들의 상호관련성을 살펴본 상관분석결과, 애착불안은 진로미결정과 정적 상관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는 부적 상관을 보여, 애착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애착회피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는 부적 상관이 있었으나, 진로결정수준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애착회피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은 낮아지지만, 진로결정수준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애착과 진로발달에 대해 살펴본 기존의 연구들에서 애착불안 및 애착회피 수준이 낮고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경우,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자신감을 얻어, 적극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되므로(장석진, 2005), 진로발달 또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것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경험적인 선행연구들에서도 안정 애착은 진로선택몰입과 정적인 관련(Blustein, Walbridge, Friedlander, & Palladino, 1991; Wolfe & Betz, 2004)이 있으며, 높은 수준의 대학생활

적응(Mattanah, Hancock, & Brand, 2004), 진로결정 자기효능감(O'Brien, Friedman, Tipton, & Linn, 2000), 진로결정수준(Tokar et al., 2003; Vignoli, 2009)을 예측하여 주는 것으로 나타나, 적응적인 진로발달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애착회피는 진로결정수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바, 안정애착과 불안정애착을 비교하여 진로발달과의 관련성을 살펴볼 경우, 애착불안 수준이 낮고 애착회피 수준은 높은 사람들이나, 애착불안 수준이 높고, 애착회피 수준은 낮은 사람들의 진로의사결정관련 어려움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도 애착불안은 진로미결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반면(Downing & Nauta, 2010; Tokar et al., 2003), 애착회피와 진로미결정은 정체성 혼미(identity diffusion)를 매개로 간접적 관련(Downing & Nauta, 2010)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즉, 애착과 진로발달과의 관계를 이해하고자 할 때에는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를 안정애착과 상반되는 차원에서 불안정애착의 개념으로 통합하여 포괄적으로 연구하기 보다는,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를 나누어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정서적 어려움은 진로의사결정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진로의사결정문제 중 진로결정수준에는 상태불안 및 상태 비관주의의 영향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는 특성불안 및 상태 비관주의의 영향력이 유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적 어려움이 진로 결정과 관련되는 문제해결활동과 의사결정 과정에 효과적으로 개입하지 못하게 하여(Saunders et al., 2000), 진로의사결정문제를

촉발시키기 때문(Constantine & Flores, 2006)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은 이들의 특질적인 불안이나, 성격적인 비관주의에 의해 영향을 받기 보다는 진로선택과 관련한 상황적 불안 및 비관적 관점에 의해 달라지는 나타났는데, 이는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상태가 고정적인 결과적 개념이라기보다는, 발달과정상의 단계적 개념에 해당되는 바, 특성 정서 및 비관주의적인 성격 특질에 의해 좌우되기 보다는, 진로결정과 관련한 상황이나 맥락에 의한 정서 및 관점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끼치는 정서적 어려움은 진로결정수준과는 달리 특성불안 및 상태 비관주의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 선택과 관련한 신념의 정도 및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랜 기간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 및 정서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바, 특질적 불안이 높은 개인의 경우 자신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고, 확신이 떨어져 진로결정과 관련한 효능감 수준 역시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오랜 기간 동안 정서 경험과 진로이론의 관계는 매우 제한적으로 다루어져 왔으나(Kidd, 2004),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정서적 어려움은 진로의사결정문제에 중요한 선행변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 연구들에서도 표면적인 진로의사결정문제를 경험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진로결정자로 구분된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전문적인 도움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는데, 이는 자신의 진로를 결정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확

신이 부족하고, 결정한 상황에 대해 편안함을 느끼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한광희, 양은주, 최송미, 2001; Hannah & Robinson, 1990). 이는 진로를 결정했다고 인지적으로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정서의 영향을 받아 현실적인 한계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써(Newman, Fuqua, & Minger, 1990), 진로의사결정문제와 관련한 정서적 어려움에 대해 보다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대학생들의 성인애착과 진로의사결정문제와의 관계에서 정서적 어려움의 매개모형을 검증한 결과, 애착불안과 진로미결정과의 관계는 상태 불안 및 상태 비관주의에 의해 완전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애착회피와 진로미결정과의 관계는 애착회피 차원이 직접적으로 진로결정수준과 관련이 있지는 않았으나, 상태 비관주의가 매개변인으로 투입되는 경우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때 애착회피는 진로결정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를 나누어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에서 정서적 어려움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Braunstein-Bercovitz 등(2012)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애착불안은 상태 불안 및 상태 비관주의에 의해 완전매개되어 진로결정수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애착회피는 상태 비관주의를 제외한 모든 정서적 어려움 및 진로결정수준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애착불안의 경우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지만 애착회피차원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서론에서도 가정하고 있었던 바와 같이 애착 및 정서적 어려움,

진로결정과의 관계에 문화적 차이가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Mau, 2001). Bartholomew와 Horowitz(1991)에 의하면 애착회피가 높은 경우 부정적인 타인모델로 인해 다른 사람과의 가까운 관계를 회피하며, 거부형과 같이 애착회피가 높으면서 애착불안은 낮다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는다. 반면 애착회피와 애착불안이 모두 높은 두려움형은 자기와 타인에 대해 모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집단주의 문화에 기반을 두고 있어 애착회피 수준이 높다고 해도 타인과 완전히 거리를 두는 것이 어렵다고 할 수 있는 반면, 개인주의 문화에 기반을 두고 있는 서구권의 경우 애착회피 수준이 높은 경우 타인과 거리를 두고 개인주의적인 활동을 하는 것에 큰 제약이 없을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따라서 서구권에서는 애착회피가 높은 경우 진로결정과 관련된 정서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정서란 외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촉발되는 것으로 특히 상태 정서는 주변 상황에 강한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애착회피가 높으면 외부와의 상호작용이 적고, 정서 촉발의 가능성이 낮아지며, 따라서 진로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의 애착회피 수준이 높다고 해도, 주변과의 상호작용이 잦고 이에 대한 영향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문화적 차원에서 촉발되는 상태 정서가 존재하게 되며, 따라서 애착회피도 정서와 관련성을 갖게 되고, 이러한 관련성이 진로의사결정문제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차원이 진로결

정수준과 다른 관계를 갖는 것은, 주요 매개변인인 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태도 차이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애착불안 유형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높은 수준의 상황적 불안을 경험하는 반면, 애착회피 유형은 우울이나 불안과의 관련성이 그만큼 높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Mikulincer & Shaver, 2007). 이는 애착불안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촉발되는 정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애착회피 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 타인과의 관계에서 거리를 두며, 정서적 교류를 차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애착불안이 높은 경우 진로결정과 관련한 불안을 많이 경험하며, 진로선택에 대해 비판적 관점을 갖게 되어 진로결정수준이 낮아지게 되는 반면, 애착회피 수준이 높은 경우, 진로결정과 관련한 불안을 특별히 많이 경험하지는 않으나, 진로선택에 대한 비판적 생각은 많이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애착회피 차원의 매개모형은 상태 비판주의에 의한 간접효과만 유의한 것으로 확인된 바, 애착회피 수준이 높은 경우에도 상태 비판주의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진로결정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성인애착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에서는 애착불안 및 애착회피 모두 특성 불안 및 상태 비판주의에 의해 완전매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애착불안이나 애착회피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특질적 불안 수준이 높고, 진로결정과 관련한 비판적 생각이 많아져 진로결정에 대한 자신감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진로결정수준과 불안정애착과의 관계에서 애착회피가 진로결정수준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난 결과와 다소 상반되는 것으로, 애착회피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진로선택에 대한 효능감 수준은 낮으나, 이러한 상태가 진로결정에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요인을 반영하는 자기에 대한 모델 및 타인에 대한 모델을 볼 때, 자기에 대한 모델은 자기 개념 및 자기존중감과 강한 상관이 있으며, 타인에 대한 모델은 대인관계 경향과 강한 상관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Griffin & Bartholomew, 1994), 위와 같은 연구결과들은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가 진로결정과 관련한 어려움을 설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자(Blustein et al., 1995; Lopez & Andrews, 1987), 애착과 진로의사결정문제와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의 중요성에 대해 주목하고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가 있다는 주장(Tokar et al., 2003)에도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수준에 따라 애착유형을 안정형, 의존형, 거부형, 두려움형으로 구분하여 진로의사결정문제 및 정서적 어려움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진로미결정의 경우 애착불안 및 애착회피 수준이 모두 높은 두려움형과 애착불안 수준은 높고 애착회피 수준은 낮은 의존형은 차이가 없고, 애착불안 수준은 낮고, 애착회피 수준은 높은 거부형과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진로결정문제와 애착과의 관계를 이해할 때, 반드시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를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반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경우, 의존형과 거부형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로미결정 매개모형은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차원의 차이가 있었으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매개모형에서는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차원의 차이가 보고되지 않은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진로의사결정문제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된 상태 불안, 특성 불안, 상태 비관주의 대해 애착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역시 두려움형과 의존형에서는 차이가 없었고, 두려움형과 거부형 및 안정형과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모두 높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특히 애착회피 수준만 높은 경우에 대해 차별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진로발달 및 진로선택과정은 다양한 맥락변인에 의해 상호적인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다(Lent, Brown, & Hackett, 1994; Roe, 1956; Savickas, 2005; Savickas et al., 2009; Super, 1980). 따라서 진로의사결정문제를 다룰 때에는 관계적인 요소, 정서적인 요소 등 다양한 변인을 함께 고려하여 생각해야 한다. 본 연구는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의 차원을 분리하여 진로의사결정문제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그동안 간과되어왔던 정서에 주목하고, 정서적 어려움의 매개효과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이를 통해 진로상담에 있어 정서적 요인의 중요성이 확인되었으며, 진로의사결정문제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진로상담 장면 실제에서 진로의사결정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담자들에게 단순히 진로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정서적 측면, 관계적 측면에 접근하여 실제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구되는 적절한 개입 방안이 무엇인지 확인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진로 상담은 주로 직업탐색활동 및 진로준비행동 등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바, 이러한 외부환경탐색이나 행동적 차원의 개입 이전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긴장감을 낮추어 주고, 비관적인 생각에 개입하여 현실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등의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진로 결정과 관련된 효능감을 증진시키고 자연스럽게 진로 결정 행동을 촉발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특질적 요인에 의해서나, 환경적 요인에 의해 불안이나 비관주의가 특히 높은 경우에는 진로탐색행동을 권장하기보다, 개인 심리상담을 통해 개인 내적인 문제에 우선적으로 개입하여 불안을 낮추어 주고 비관적 생각을 교정하여 주는 절차를 밟는다면, 진로 상담의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진로미결정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변인에 대해서 애착 및 정서적 어려움이 끼치는 영향력이 다르다는 것을 밝혀 차별적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예컨대, 진로결정과 관련한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 어려움인 상태 불안과 상태 비관주의에 주목하고, 진로선택에 대한 불안 수준을 낮추어 주고 진로선택 후에 경험하게 될 낙관적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반면, 진로결정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고 확신이 떨어져 상담을 요청하는 내담자에게는, 다시 말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낮은 내담자에게는, 이들의 특질적인 불안 수준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의의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들이 있으므로, 제한점들을 밝히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서울 시내에 대

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에 국한되어 있었다. 따라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계층,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각각 진로미결정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수준의 선행변인이 되고, 애착과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이 되는 것으로 밝혀져 있는 바, 애착 및 정서적 어려움을 고려하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구조적 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각각의 종속변인으로 선정하여 두 차례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구조방정식이나 경로분석의 방법을 활용한다면 여러 번의 통계분석 없이 보다 간명하게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진로결정수준은 발달단계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에 있는 바, 이에 대한 종단연구가 진행된다면 진로상담영역에 보다 많은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한계점들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Preacher 등(2007)이 제안한 SPSS Macro를 활용하여, 이중매개모형을 검증하고 부트스트래핑 방식을 통해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여 통계적 타당성을 높였다는 점, Baron과 Kenny(1986)의 전통적 매개효과 검증이 아닌, 간접효과만 유의한 매개모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연구가 부족했던 진로발달과 관련한 정서적 어려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갖는다.

참고문헌

- 고향자 (1992). 한국 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상담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영근, 강민철, 조아라, 이윤희 (2011). 대학생의 애착,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심리적 독립과 우유부단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4), 995-1016.
- 민경희 (2012). 대학생용 정서, 성격적 진로문제(EPCD) 척도 타당화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수길, 이영희 (2002). 한국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변인과 개인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1), 141-160.
- 서강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2008). 2007학년도 재학생 실태조사 연구. 서강대학교 학생상담연구소: 서강상담연구, 1, 21-44.
-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 (2010). 효과적인 대학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대학생활 의견조사 보고서: 2009년 8월 및 2010년 2월 대학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서울: 성루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
-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2011). 서울대학교 신입생 특성 조사 보고서.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서진희, 이제경 (2009). 부모진로행동이 중학생 자녀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0(4), 2153-2167.
- 숙명여자대학교 학생생활상담소 (2011). 2011학년도 신입생 실태 조사. 숙명여자대학교 학생생활상담소.

- 양승민 (2003).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 상호작용 양식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연세대학교 상담센터 (2011). 2011학년도 재학생 실태 조사. 연세대학교 상담센터.
- 유성경, 유정이 (2000). 집단주의-개인주의 성향과 상담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2), 19-32.
- 이은경 (2001). 자기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은진 (2001). 다재다능한 대학생을 위한 진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임정선 (2007). 한국과 독일 성인의 애착유형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239-254.
- 장석진 (2005). 대학생의 애착과 진로의사결정 수준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 학생생활연구, 19, 91-115.
- 정애경, 김계현, 김동민 (2008). 진로미결정 및 진로 관련 변인에 관한 국내연구 메타분석. 상담학연구, 9(2), 551-564.
- 한광희, 양은주, 최송미 (2001). 신입생의 진로 의식에 대한 태도 연구. 연세상담연구, 19, 3-18.
- 한덕웅, 이창호, 탁진국 (1993). Spielberger 상태-특성 불안 검사의 표준화. 성균관대학교 학생지도연구, 10, 214-222.
- Ainsworth, M. D. S. (1989). Attachments beyond infancy. *The American Psychologist*, 44, 709-716.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226-244.
- Betz, N. E., & Vuyten, K. K. (1997). Efficacy and outcome expectations influence career exploration and decidednes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6(2), 179-189.
- Betz, N. E., Klein, K. L., & Taylor, K. M. (1996). Evaluation of a short form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1), 47-57.
- Blustein, D. L., Devenis, L. E., & Kidney, B. A. (1989). Relationship between the identity formation process and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2), 196-202.
- Blustein, D. L., Prezioso, M. S., & Schultheiss, D. P. (1995). Attachment theory and career development: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3, 416-432.
- Blustein, D. L., Walbridge, M. M., Friedlander, M. L., & Palladino, D. E. (1991). Contributions of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parental attachment to the career development proc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1), 39-50.
- Bowlby (1982). *Attachment and loss (2nd ed.)*. *Attachment, Vol. 1*, 1982. New York: Basic Books.
- Braunstein-Bercovitz, H., Benjamin, B. A., Asor, S., & Lev, M. (2012). Insecure attachment and career indecision: Mediating effects of anxiety and pessimism.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1, 236-244.

-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R. (1998). Self report measurement of adult attachment: An integrative overview. In J. A. Simpson, & W. S. R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 (pp.46-76)New York: Guilford press.
- Brown, S. D., & Rector, C. C. (2008). Conceptualizing and diagnosing problems in vocational decision making. In S. D. Brown, & R. W. Lent (Eds.),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 (pp.392-407). (4th ed.). New York: Wiley.
- Campagna, C. G., & Curtis, G. J. (2007). So worried I don't know what to be: Anxiety is associated with increased career indecision and reduced career certainty. *Australian Journal of Guidance and Counselling*, 17, 91-96.
- Chartrand, J. M., Rose, M. L., Elliott, T. R., Marmarosh, C., & Caldwell, S. (1993). Peeling back the onion: Personality, problem solving, and career decision-making style correlates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1), 66-82.
- Constantine, M. G., & Flores, L. Y. (2006). Psychological distress, perceived family conflict, and career development issues in college students of color.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4(3), 354-369.
- Cook, W. L. (2000). Understanding attachment security in family contex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2), 285-294.
- Corkin, D., Arbona, C., Coleman, N., & Ramirez, R. (2008). Dimensions of career indecision among Puerto Ric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49, 81-94.
- Crites, J. O. (1981). *Career counseling: Models, methods, and materials*. New York: McGraw-Hill.
- Downing, H. M., & Nauta, M. M. (2010). Separation-individuation, exploration, and identity diffusion as mediator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and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6(3), 207-227.
- Fraley, R. C., Waller, N. G., & Brennan, K. A. (2000). An item response theory analysis of self-report measures of adult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2), 350-365.
- Fuqua, D. R., Newman, J. N., & Seaworth, B. S. (1988). Relation of state and trait anxiety to different components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5, 154-158.
- Gaffner, D. C., & Hazler, R. J. (2002). Factors related to indecisiveness and career indecision in undecided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43, 317-326.
- Gati, I., Gadassi, R., Saka, N., Hadadi, Y., Ansenberg, N., Friedman, R., et al. (2011). Emotional and personality-related asp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difficulties: Facets of career indecisivenes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9, 3-20.
- Gati, I., Krausz, M., & Osipow, S. H. (1996). A taxonomy of difficulties in care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4), 510-526.
- Gianakos, I. (1999). Patterns of career choice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4(2), 244-258.

- Hackett, G., & Betz, N. E. (1981).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3), 326-339.
- Hannah, L. K., & Robinson, L. F. (1990). Survey report: How colleges help freshmen select courses and careers. *Journal of Career Planning and Employment*, 1(4), 53-57.
- Hartung, P. J., & Blustein, D. L. (2002). Reason, Intuition, and Social Justice: Elaborating on Parsons's Career Decision-Making Model.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0(1), 41-47.
- Hazan, C., & Shaver, P. R. (1990). Love and work: An attachment-theoretical perspect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2), 270-280.
- Isaacowitz, D. M. (2001). *Optimism and subjective well-being in adulthood and old age*.
- Kelly, K. R. & Lee, W. C. (2002). Mapping the Domain of career decision problem.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1, 302-326.
- Kelly, K. R. (1993). The relation of gender and academic achievement to career self-efficacy and interests. *Gifted Child Quarterly*, 37(2), 59-64.
- Kenny, M. E. (1987). The extent and function of parental attachment among first-yea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1), 17-29.
- Kidd, J. M. (2004). Emotion in career contexts: Challenges for theory and resear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4(3), 441-454.
- Lapsley, D. K., Rice, K. G., & Shadid, G. E. (1989).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3), 286.
- Larson, L. M., Heppner, P. P., Ham, T., & Dugan, K. (1988). Investigating multiple subtypes of career indecision through cluster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5, 439-446.
- Lent, R. W., & Hackett, G. (1987). Career self-efficacy: Empirical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0(3), 347-382.
- Leong, F. T. L., & Chou, E. L. (1994). The role of ethnic identity and acculturation in the vocational behavior of Asian Americans: An integrative review.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4, 155-172.
- Lopez, F. G., & Andrews, S. (1987). Career indecision: A family systems perspective.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5, 304-307.
- Lounsbury, J. W., Moffitt, L., Gibson, L. W., Drost, A. W., & Stevens, M. (2007). An investigation of personality traits in relation to job and career satisfac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professionals.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22(2), 174-183.
- Lounsbury, J. W., Steel, R. P., Gibson, L. W., & Drost, A. W. (2008). Personality traits and career satisfaction of human resource professionals.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ternational*, 11(4), 351-366.
- Mattanah, J. F., Hancock, G. R., & Brand, B. L. (2004). Parental attachment, separation-individuation, and college student adjustment: A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of mediational

- effec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 213-225.
- Mattanah, J. F., Lopez, F. G., & Govern, J. M. (2011). The contributions of parental attachment bonds to college student development and adjustment: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8, 565-596.
- Meyer, B. W., & Winer, J. L. (1993). The Career decision scale and neuroticism.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 171-180.
- Mikulincer, M., & Shaver, P. R. (2007). *Attachment in adulthood: Structure, dynamics, and change*. New York: Guilford Press.
- Mitchell, L. K., & Krumboltz, J. D. (1984). Research on human decision making: Implications for career decision making and counseling.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 238-280.
- Multon, K. D., Heppner, M. J., Gysbers, N. C., Zook, C., & Ellis-Kalton, C. A. (2001). Client psychological distress: An important factor in career counseling.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9(4), 324-335.
- Newman, J. L., Fuqua, D. R., & Minger, C. (1990). Further evidence for the use of career subtypes in defining career status.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39, 178-188.
- O'Brien, K. M., Friedman, S. M., Tipton, L. C., & Linn, S. G. (2000). Attachment, separation, and women's vocational development: A longitudinal analysis. *The Journal of Psychology*, 47, 301-315.
- Osipow, S. H., Carney, C. G. & Barak, A. (1976). A scale of educational-vocational undecidedness: A typological approa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9, 233-243.
- Overbeek, G., Vollebergh, W., Engels, R., & Meeus, W. (2003). Parental attachment and romantic relationships: Associations with emotional disturbance during late adolescen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1), 28-39.
- Parsons, F. (1909/1967). *Choosing a vocation*. New York: Agathon Press.
- Phillips, S. D. (1994). *Choice and change: Convergence from the decision-making perspective*.
- Preacher, K. J., & Hayes, A. F. (2008). Asymptotic and resampling strategies for assessing and comparing indirect effects in multiple mediator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40(3), 879-891.
- Rottinghaus, P. J., Jenkins, N., & Jantzer, A. M. (2009). Relation of depression and affectivity to career decision status and self-efficacy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7, 271-285.
- Saka, N., Gati, I., & Kelly, K. R. (2008). Emotional and personality-related asp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difficultie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6, 403-424.
- Santos, P. (2001). Predictors of generalized indecision among Portuguese second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9, 381-396.
- Saunders, D. E., Peterson, G. W., Sampson Jr, J. P., & Reardon, R. C. (2000). Relation of depression and dysfunctional career thinking to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6(2), 288-298.
- Savickas, M. L. (1993). Career counseling in the

- postmodern era. *Journal of Cognitive Psychotherapy*, 7(3), 205-215.
- Savickas, M. L. (1995). Constructivist counseling for career indecision.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3(4), 363-373.
- Savickas, M. L. (1997). Career Adaptability: An Integrative Construct for Life-Span, Life-Space Theory.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5(3), 247-259.
- Scheier, M. F., & Carver, C. S. (1985). Optimism, coping, and health: assessment and implications of generalized outcome expectancies. *Health psychology*, 4(3), 219-247.
- Scheier, M. F., Carver, C. S., & Bridger, M. W. (1994). Distinguishing optimism from neuroticism (and trait anxiety, self-mastery, and self-esteem): A reevaluation of the Life Orientation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1063-1078.
- Solberg, V. S., Good, G. E., Fischer, A. R., Brown, S. D., & Nord, D. (1995). Career decision-making and career search activities: Relative effects of career search self-efficacy and human agenc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2(4), 448.
- Spielberger, C. D. (1972). *Anxiety: Current trends in theory and research: I*.
- Spielberger, C. D., Gorsuch, R. L., & Lushene, R. E. (1970).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Spielberger, C. D., Gorsuch, R., & Lushene, R. E. (1983).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elf-evaluation questionnaire) manual*. Palo Alto, Californi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Super, D. E. (1957). *The psychology of careers*. New York: Harper & Row.
- Swanson, J. L., & Fouad, N. A. (1999). Applying Theories of Person Environment Fit to the Transition From School to Work.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7(4), 337-347.
- Tak, J. K., & Lee, K. H. (2003). Development of the Korean Career Indecision Inventor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1.
- Taylor, K. M., & Betz, N. E. (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1), 63-81.
- Tokar, D. M., Withrow, J. R., Hall, R. J., & Moradi, B. (2003). Psychological separation, attachment security, vocational self-concept crystallization, and career indecision: A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1), 3-19.
- Tracey, T. J. (2007). Moderators of the interest congruence-occupational outcome relation. *International Journal for Educational and Vocational Guidance*, 7(1), 37-45.
- Van Eecke, Y. (2007). Attachment style and dysfunctional career thought: How attachment style can affect the career counseling proces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5, 339-350.
- Vignoli, E. (2009). Inter-relationships among attachment to mother and father, self esteem and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5, 91-99.
- Wei, M., Heppner, P. P., Russell, D. W., & Young, S. K. (2006). Maladaptive perfectionism and ineffective coping as mediators between attachment and future depression: A prospective analysis. *Journal of*

- Counseling Psychology*, 53(1), 67-79.
- Wolfe, J. B., & Betz, N. E. (2004). The relationship of attachment variables to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fear of commitment.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2, 363-369.
- Zhao, X., Lynch, J. G., & Chen, Q. (2010). Reconsidering Baron and Kenny: Myths and truths about mediation analysi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7(2), 197-206.
- 원 고 접 수 일 : 2013. 09. 30.
수정원고접수일 : 2013. 12. 27.
최종게재결정일 : 2013. 12. 31.

Influence of Insecure Attachment on Career Decision Making for College Students: Ba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Difficulties

Ji-Won Lee

Ki-Hak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difficulties on the association between insecure attachment and career indecision and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For this, a total of 190 undergraduates were asked to complete the questionnaires that measuring adult attachment, career decision scale,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emotional difficulties(trait anxiety and trait pessimism, state anxiety and state pessimism). The data was analyzed using SPSS 18.0 and SPSS Macro.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full mediation effect of state anxiety and state pessimism on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anxiety and career indecision. However, there was indirect-only mediation effect of state pessimism on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avoidance and career indecision. Second, relationship between insecure attachment(attachment anxiety and attachment avoidance) and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was full mediated by trait anxiety and state pessimism. Thir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career indecision,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tate anxiety, trait anxiety and state pessimism according to the differential adult attachment style. These findings contribute to the understanding of the path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career development and highlight the important role of emotional difficulties in the process of career decision making problems.

Key words : insecure attachment, career indecision,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xiety, pessimism, mediating effect